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서관)

# 현대불교

고개를 크게 세우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세금 거래 실적의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서비스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태환/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논설위원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2월 4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 이렇게 들었다

불교민중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르침을 찾지 않지 않다.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마음이 맞으면 부처님도 부러워한다'고 했을까. 심지어 나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돕고 힘을 합한다(同舟相助)고 했다. 불화와 분규로 잠잠했던 해방이후 현대불교사를 돌아보면 늘 '화합 차원'이 대의명분이 되어 일이 전개되고 수습되었음을 간파할 수 있다. 그런데도 '화합'이란 말이 교계에서 늘 되뇌이고 있다. 부처님의 가장 우선한 가르침인 화합에 그들이 드리고 있는 듯 하다. 가르침의 참 뜻을 제대로 살필 때이다. (편집자 주)

우유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갈라. 너희들은 한 스승 밑에서 배웠으니 서로 화합하기를 우유의 물이 같아서라. (종일아환경)

### 우유와 물이 잘 섞이듯

대중이 흠어지는 것을 보거든 능히 화합하게 하며, 남의 착한 일은 나타내 주고 남의 허물은 숨겨주며, 남이 부끄러워 할 것을 선포하지 말고, 남의 비밀을 듣거든 발설하지 않으며, 작은 은혜를 자기에게 준 자가 잊거든 크게 갚기를 생각하고, 자기에게 원망을 하는 자에겐 항상 선심을 내며 원한(怨恨)이 똑같이 괴로워하거든 먼저 원망하는 자를 구원하며, 구짓는 자나 와서 때리는 사람을 보거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며, 모든 증상을 보되 부모와 같이 하라. (우비새계경)

빛들이 다투면 때 맞춰 화해시키고, 허명만 알 전하기를 즐기지 않으면 후생에 친한 사람과 헤어지지 않으며 그 몸이 언제나 사람들의 어원이 되라. (분별선악소기경)

낙서에 명드는 불교문화재 15천

불국사 창건자 김대성 아니다 6천

古都경주 화쪽에 담는 두 화가 13천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금동관세음보살입상 백제말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풍만한 얼굴과 고졸(古拙)한 미스로 내연의 정신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익산왕궁리오층석탑 고려초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으로 옥개(屋蓋) 양식은 백제석탑을 따르고, 탑신부의 결구(結構)와 옥개받침 수법은 신라석탑을 따르고 있다.

天順八年(1471) 天命을 받들조오사려너나  
우리聖上이키天命을 받들조오사려너나  
라흔다시링고르시니만민이아스라  
便安호며네고시使安호야저그디업스  
며크니업시다天地아最恩을남스  
오나쇼히며유이니갑스을받디업스  
리오마르오직외만호원이르거우시  
고터릭반호호른업스오나必陵섯五

상원사중창권선문 왕실에서 사찰에 시주를 한 기록으로 초기 한글 서체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다. 창(榜), 표장(表狀)에는 붉은 당초문(唐草文)이 있는 비단을 썼다.



통도사 대웅전 두개의 건물을 복합시킨 평면형으로 건물내부 기둥배치가 다른 건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구조를 띠고 있다.

## 성보 4점 국보로

### 일제잔재 청산 문화재 재평가 '결실'

통도사 대웅전(보물 제144호) 등 성보 4점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됐다. 또 봉선총경사비갈(奉先總經師碑)·국보 제7호)이 봉선총경사사적갈비(奉先總經師師碑)로 변경되는 등 3점이 원래명칭으로 환원됐다. (관련기사 6면)

대장경관전(海印寺大藏經館)으로 개칭, 가처에곡을 바로잡는다고 문화재위원회는 밝혔다. 이외에도 중추사지상총석탑(보물 5호) 등 보물 3점이 지방문화재로, 사적 8건이 지방기념물로 각각 하향 등급조정되는 등 모두 17건의 문화재에 대해 등급이 재조정됐다. 이번 문화재 등급조정 및 명칭변경은 올해초 문화부가 일제지정 문화재 503건에 대한 재평가작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한영우 기자)

## 경북 직능단체 결성 '봄'

### 직지사 교사회·구미 택시기사회등 잇달아 창립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 불자회 중심으로 경북 불교신앙단체 결성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9월 구미교사불자회가 창립대회 이어 11월24일에는 김천과 안동지역 초·중·고 교사가 참여하는 직지사교사불자회가 창립됐으며 26일에는 구미운전불자회가 창립회를 가졌다. 조만간 문경·점촌교사불자회도 창립을 서두르고 있어 지난 90년에 창립된 상주교사불자회와 더불어 제8교구를 중심으로 한 교사불자회연합도 태동할 조짐이다. 직지사가 교사불자회와 운전

불자회 조직에 적극 나서서 까닭은 불교대구방승 개국과 청소년자연합 파라마이타의 결성 때문. 즉 달리는 법당이자 방승교의 최첨단 운전불자회와 청소년불자들이 이끌어 나갈 교사불자회를 조직함으로써 포괄성화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11월24일 직지사 설립전에서 창립회의를 가진 직지사교사불자회(회장 조봉연)는 △년2회 이상 문화유적답사 △년3회 이상 교사 및 청소년을 위한 특강 개최 △학교별 불교반 운영 △사찰불교학생회 활동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 제2회 신행수기 공모

본지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신행수기를 공모합니다.

△참고분량: 2백자 안고지 30매 내외  
△공모대상: 불자면 누구나  
△원고마감: 1996년 12월 15일  
△당선작 발표: 1997년 본지 신년호  
△시상내용  
◇대상(유미상·1명): 상패 상품(부처님조각 순금 메달 5돈)  
◇우수상(본사 사장상·2명): 상패 상품(3돈)  
◇특별상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상(1명): 상패 상품(3돈)  
·한태종 총무원장상(1명): 상패 상품(3돈)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1명): 상패 상품(도서)  
◇응모자 전원: 도서출판 여시아문 도서 증정  
△접 수: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공모 담당자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21세기 한국불교계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세계화의 건인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은 한국불교의 새장을 열 새 인재를 모집합니다.

직종	인원	응시 자격
경력기자	0명	· 불교신자
수습기자	0명	·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면접단, 경력기자는 2차에 한함
- ▲제출서류: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이력서(명함판 사진 2매), 자기 소개서(원고지 5매 분량)
- ▲접수 및 문의: 1996년 12월 18일(목)까지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총무국 전화(02)737-8881
-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1996년 12월 21일(토) 오후2시 본사 사옥
- 인터넷 부디마아 검색 가능 (<http://www.buddhapia.co.kr>)
- 우편접수는 마감당일 도착 유효

### 현대불교신문사

사람, 사회, 미래를 위한 가치경영

## 차안에서 느끼는 TV, 영화, CD원음의 감동- 현대 카AV시스템!

비디오CD, TV, FM, AM, TAPE, 음악CD 6매 자동선곡까지- 국내 최초 일체형 현대 카AV시스템

오디오투만 만족하던 카오디오에서 최첨단 비디오까지- 현대 카AV시스템은 생생한 영화, TV에서 6장 CD자동선곡의 신명난 음악감상까지 자동차 생활에 최고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달린때에는 원음의 감동으로, 머물때는 생생한 영상으로. 매일타는 자동차- 겉보다 속이 중요합니다.

- NAVALION (NAV-411) 4-PT-ISO TV, AM, FM, TAPE, VIDEO CD/CHANGER CONTROL, <2>디스플레이 1,997,800
- CAR-VIDEO-211 4-PT-ISO TV, 6000 VIDEO ONLY (FM, AM, TAPE), 2-PT-ISO DISPLAY, 1,997,800
- CAR-TV/VIDEO-411 4-PT-ISO TV, 6000 VIDEO ONLY (FM, AM, TAPE), 2-PT-ISO DISPLAY, 1,997,800

당시현역 전문 서비스

- 서울: 02-737-8881 (12시~19시)
- 부산: 051-850-1111 (12시~19시)
- 대구: 053-850-1111 (12시~19시)
- 광주: 062-850-1111 (12시~19시)
- 대전: 042-850-1111 (12시~19시)
- 울산: 054-850-1111 (12시~19시)
- 창원: 055-850-1111 (12시~19시)
- 제주: 064-850-1111 (12시~19시)

**현대전자**  
MEMBER OF HYUNDAI